가톨릭정보

세계의 성당기행 시리즈 7

성 프란체스코상과 친케테레, 이태리

이태리의 지중해는 듣기만해도 낭만이 넘친다. 뜨거운 태양과 백사장, 올리브와 와인, 다양한 음식이나 오랜 전통의 문화와 예술 등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 밀라노에서 차로 약 2시간 반 가량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태리 서북쪽 해안가 친케테레 (cinque Terre) 라는 지역에 다다른다. - Five land 라는 뜻인데 Riomaggiore, Manarola, Corniglia, Vernazza and Monterosso 의 작은 5개 마을을 일컫는다.
워낙 외진 곳이라 교통편이 마땅치 않지만 관광객으로 넘친다. 다섯개 마을은 터널을 통해 기차로 연결되며 또 산비탈을 잇는 트레일 하이킹 코스로도 연결되어 있다. 지중해를 바라보며 걷는 트레일 하이킹은 포도밭을 따라 산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사 주고받기로 심심치 않다. 이 마을들은 각기 독특한 모습으로 중세 이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중 Monterosso 는 마을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으로 사진가에게 많은 인기가 있다.

성 프란체스코 동상은 이 다섯 개 마을 중 맨북쪽 마을인 Monterosso 의 카푸친 수녀원과 Church of San Francesco 앞에 자리하고 있다. 카푸친 수녀원 앞뜰의 이 동상은 마치 프란치스코 성인이 먼 지중해를 바라보며 평화를 비는 듯한 자세로 보이지만 실상 성인은 그의 애견을 쓰다듬고 있는 모습이다. 수녀원 앞 절벽을 깍아 세워 지은 동상이라 앞에서는 넓은 공간이 없어 오히려 뒤에서 더 잘 보인다.
이 카푸친 수녀원과 Church of San Francesco는 1618년 Monterosso 에 파견된 프란체스코 수도회소속 카푸친 수도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수녀원은 그야말로 지중해의 잔잔한 바다가 보이는 평화와 영성의 장소다. 여기에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성인의 삶, 즉 현실과 가난을 경험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곳이란 생각이 든다.
수도원 뒷마당에는 중세 때부터 이어오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푸른 지중해 풍경을 고스란히 품고있다. 수 백년된 묘비를 보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쯤 생각하게 한다. 눈부신 햇살에 비친 평화로운 지중해가 오늘따라 더욱 푸르러 보인다.

사진과 글 변태용 요셉

연중
제 15주일

2023년
07월 16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씨 뿌리는 사람〉 빈센트 반 고흐 1889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이사야서55,10-11			
# 화답송	시편 145(144),1-2.8-9.10-11.13ㄷㄹ-14(◎ 1 참조)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18-23			
# 복음 환호송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마태오13,1-23			
# 성가번호	입당 32	봉헌 219	성체 164	파견 400

성 당 소 식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소형덕(베드로) –가족
- 곽창진(스테파노) – 곽 루시아
- 이형록(요아킴), 조순덕(안나) –나한복(브루노) 가족
- 박로철(야고보) – 민 엘리자벳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데레사) – 임 안나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김규옥(올리바) – 민 엘리자벳
- 성경숙(아가다) – 가족
- 이 마이클 – 가족, 오경선(원선시오)
- 성순영(라파엘라) 가정 – 서 엘리자벳, 정 데레사, 이대우(베드로) 가족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가정 – 이막동(아네스)
- 오경선(원선시오) – 서경호(대건 안드레아)
- 오용덕(헨리코) – 서경호(대건 안드레아)
- 이소희(베로니카) – 서 팰릭스
- 전옥주(글라라) 가정 – 정 데레사
- 이창영 – 이서형(요안나)
- 최현지(안토니아) – 한지혜(크리스티나)
- 탄자니아 공소 성당 지붕과 병원을 위해 도움주신 모든 분들 –유병기(베네딕도), 유용희(율리아나)
- 김규민(케빈), 김민결(마크) 세례 축하 –정주원(율리아나), 정수지(아네스), 럿거스 구역, 자모회, 한지혜(크리스티나)
- 안가연(루시아) 세례 축하 – 사우스브런스윅 구역, 한상철(빈첸시오) 가족, 자모회, 한지혜(크리스티나)
- 강 엘로이즈 클라라 세례 축하 – 럿거스 구역, 한지혜(크리스티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6/25 주일 헌금..... $1,357
- 7/2 주일 헌금..... $1,135
- 7/9 주일 헌금..... $1,328
- 2차헌금 (유틸리티)..... $598
- 6/23-7/9 감사헌금 $900

성순영($300) 오용덕($200) 임안나($200) 익명($200)

- 6/23 – 7/9 교무금..... .....$4,170

손홍구(7-9)	서경호(7-8)	이광호(7-8)
김삼식(7-8)	오경선(7-8)	임안나(6-8)
박가브리엘(6)	이용문(6)	서영원(5-6)
배인경(4-6)	김안나(4-6)	허종(7)
백상헌(7)	최율리오(2022년 10-12)	
황태진(7-8)	장문국(5-8)	임문수(7)
염기선(7)	김영필(7-8)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방진숙(데레사)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구역별 친교 봉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10월 부터 셋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 준비된 간식/차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봉사 당번: 8/6 럿거스 • 9/10 먼로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오늘 세례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안가연(루시아), 김규민(케빈), 김민결(마크) 학생들과 강 엘로이즈(클라라) 아기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 나갈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3/4 분기 전체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8월 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주일학교 (K – 8th Grade) 및 유스 (9th- 12th Grade)모집

- 2023-2024 주일학교가 9월 10일에 시작합니다.
- 접수: 7월 23일- 8월 30일까지 OLM성당 홈페이지 링크 이용
- 접수비: $70/학생, $130(2명), $180(3명) 한지혜(크리스티나) 자모회장님께 전달

신앙 안에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을 잘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8월 6일 11시 30분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김수완 세실리아 청소년 분과장)

2023년 제 27차 미동북부 성령대회

- 일시: 7. 22(토) 오전 9시 — 7. 23(일) 오후 5시
- 참가비: $35(점심 포함)
- 장소: 뉴저지 포트리 하이스쿨

청년 및 소년 레지오단원 모집

-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를 통해 개인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성모님의 군단에 초대합니다.

청년 쁘레시디움 (18세 이상 남여 청년)

- 문의: 청년 Pr. 단장 정수지 아네스 (732-430-5385)

소년 쁘레시디움 (첫 영성체를 한 5학년-12학년 학생)

- 문의: 꾸리아 단장 채미영 데레사 (862-579-9999)

이냐시오 영성 8박 9일 침묵 피정

- 일시: 8월 10일(목) 오후 4시 - 18일(금) 오후 3시
- 장소: Loyola Retreat, 9270 Loyola Retreat Rd. Faulkner, MD 20632
- 지도신부: 박병관 사도 요한 (예수회)
- 주체: 동중부 KCLC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 주제: 묵시록의 신앙으로 사는 오늘
- 참가비: $950/1인(숙식비용 포함)
- 인원 : 선착순30명 (7월 25일 마감)
- 문의 : 오종선 로사리오 (443-453-3782)

미주 청년 천주교 모임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 Renewal 피정

- 일시: 2023년 8월 11일(금) 오후 7시 - 8월 13일(일) 오후 3시
-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 Abbeys, Newton, NJ)
- 대상 및 참가비: 21-35살, $250 (8월 4일 마감)
- 신청 : RYCReborn.org

탄자니아 공소 성당과 병원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으로 총 모금액 $6,020을 박 아니타 수녀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유병기, 유용희 드림

본당 유지 관리 현황

엘리베이터 수리 완료 및 정상 운행
친교실 에어컨 고장으로 냉방이 되지 않고 있으니 친교실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씀 의 전 례

제1독서: 이사야서55,10-1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18-23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 복음 13,1-23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 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메타천 교구 공지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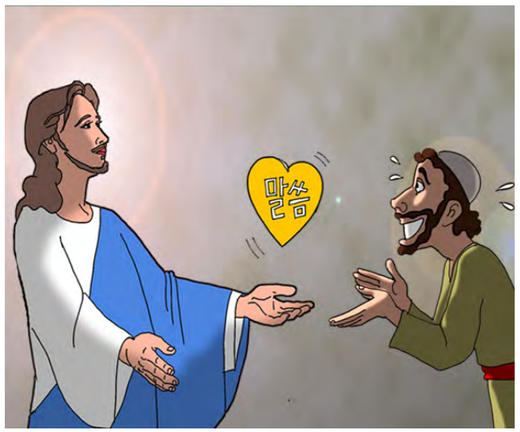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상식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사를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든 감각과 함께 하느님께 나아가야 하며, 지적인 면만으로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땅 위의 표식들을 통해 자신을 주십니다 – 특히 빵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